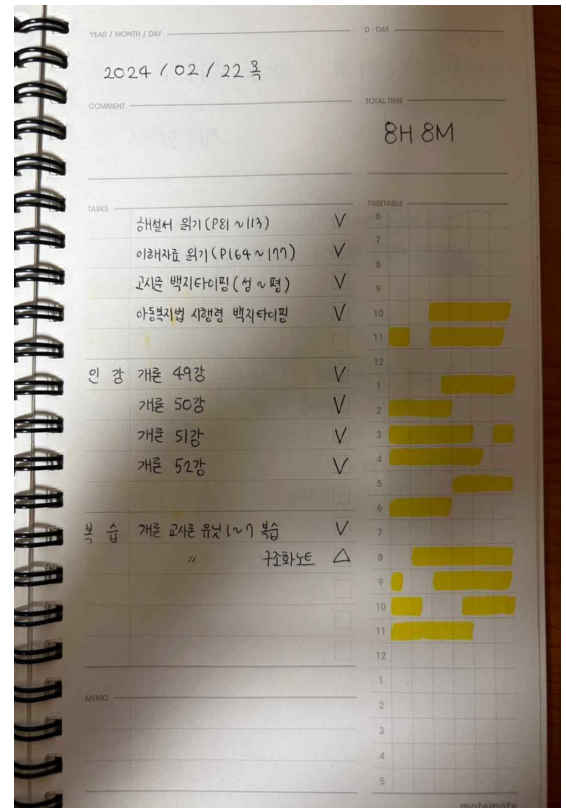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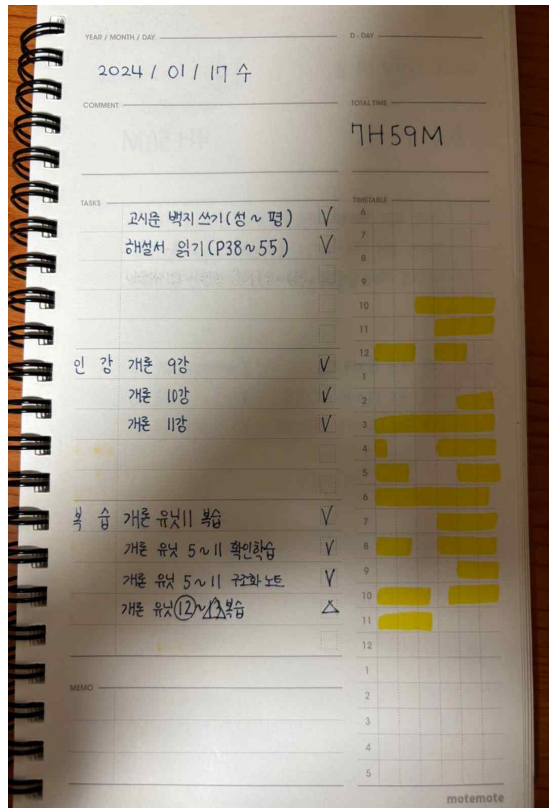


<2025 유아임용 재학생 초수 합격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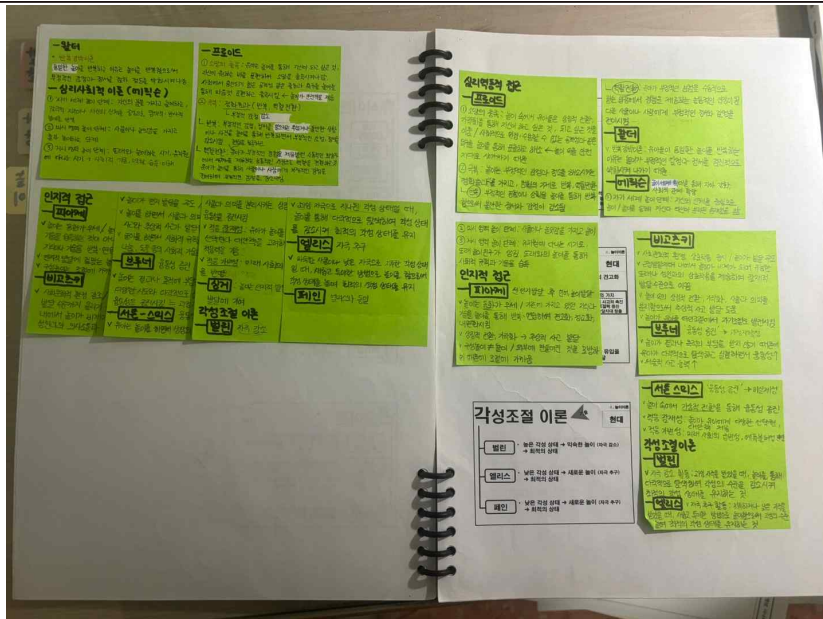
자기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지역: 경남 - 공부경력: 재학생 초수 - 수강방식: 인강 - 병행 여부: 상반기 학부 병행 + 하반기 올인 - 등수: 경남 6등 / 1차 커트라인(+0), 2차 뒤집기 성공★ 												
하 쌤을 선택한 이유	<p>3학년 2학기 종강하고 난 뒤부터 임용카페를 통해서 어떤 강사님을 들을지 찾고 있었습니다. 흔히 초수가 들으면 좋은 강사, 강의력이 좋은 강사 등 합격수기나 홍보글을 통해 대부분 찾기 마련이에요. 제가 임용카페를 통해 몇분의 강사님을 선정해두었는데...(그때는 하 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의 말을 듣고 바로 하 쌤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용카페의 글도 참고하기 좋지만, 지인의 말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하 쌤을 선택한 이유는 정말정말 많은데요. 일단 높은 강의력, 즐리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 일목요연한 기본서, 하 쌤 커리의 꽃 전략노트♥ 입니다! 뭐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p> <p>1. 높은 강의력</p> <p>하 쌤은 강의력이 정말 좋습니다. 초수가 들어도 정말 쉽게 설명해주세요. 아무래도 유아교육 전공자,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인해 이론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러다보니깐 이론을 토대로 한 유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일유 기출, 유특 기출, 하 쌤 픽들을 거름이를 들고 나오셔서 짚어주세요.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한 강의하실 때 TV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형광펜을 그어주세요. 이게 정말 좋은 게 초수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서 어디를 그어야 할지 모르는데, 미리 그어오시거나 실시간으로 그어주세요!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형광펜 긋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p> <p>2. 즐리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p> <p>하 쌤 목소리가 정말 또렷하고 즐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톤이 낮거나 차분한 목소리는 저랑 맞지 않았고, 많이 즐렸어요. 하지만 하 쌤 목소리는 톤이 높고 또렷해서 집중이 잘 됩니다. 1년을 함께 할 강사님인데, 이런 목소리 톤, 디션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강사님들에 비해 강의 시간도 짧아요. 보통 한 강의가 30~40분에서 끝나고, 길면 1시간 정도예요. 또 딱 쉬어야 할 타임? 끊어야 할 부분을 잘 맞춰주셔서 강의 듣는 게 힘들지 않아요. 보통 1주일에 10개 정도의 강의를 올라오는데, 저는 3일에 걸쳐서 나눠 들었어요. 하루에 3개씩 듣고 복습하는 식으로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한번에 들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나눠서 듣는 게 맞아서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요일은 타강사 논술 강의를 한번에 몰아서 들었고, 타강사님이 내주시는 숙제를 가지고 복습한 게 끝입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월</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h>토</th> </tr> </thead> <tbody> <tr> <td>1~3강 듣기, 복습</td> <td>4~6강 듣기, 복습</td> <td>7~10강 듣기, 복습</td> <td>1~3강 복습</td> <td>4~6강 복습</td> <td>7~10강 복습, 타강사 논술 강의</td> </tr> </tbody> </table> <p>3. 일목요연한 기본서</p> <p>저는 줄글로 된 기본서보다는 하 쌤처럼 표형식으로 된 기본서가 더 가독성도 높고, 보기가 편했어요. 줄글로 되면 공부하기도 전에 피곤하달까..^^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 없고, 워낙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따로 찾아보거나 프린트해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 쌤의 자료</p>	월	화	수	목	금	토	1~3강 듣기, 복습	4~6강 듣기, 복습	7~10강 듣기, 복습	1~3강 복습	4~6강 복습	7~10강 복습, 타강사 논술 강의
월	화	수	목	금	토								
1~3강 듣기, 복습	4~6강 듣기, 복습	7~10강 듣기, 복습	1~3강 복습	4~6강 복습	7~10강 복습, 타강사 논술 강의								

	<p>는 워낙 고퀄이라 본인이 따로 만드실 필요도 없고, 쌤이 주는 자료만 적극 활용한다면 초수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초수라 막막할 수 있겠지만 쌤이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저만의 공부방법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쌤 커리에 맞는 공부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듣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p> <p>4. 쌤 커리의 꽃! 전략노트♥</p> <p>전략노트 이거 진짜 요물입니다..★ 개각론 강의 끝나고 저는 전략노트만 봤어요. 전략노트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방대한 양의 개각론을 여러 번 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보기만 해도 숨막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쌤들이 본인이 직접 단권화를 하시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하면 오개념이 생기거나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생략하거나 빠뜨려서 못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쌤은 전략노트로 방대한 양의 개각론 내용을 단권화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유 기출, 유특 기출, 교육학 기출, 논술 기출을 이룬 밑에 달아주셔서 기출을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또 시험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전략노트도 처음 1회독하는 데에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지만 회독 수를 늘려나갈 수록 속도도 빨라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p>
<p>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p>	<p>1. 1~2월</p> <p>저는 아무래도 재학생이다보니 이 시기를 알차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3월부터는 학교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3~6월까지의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에 인강 포함해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p> <p>밑에 사진처럼 아침에는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을 외우고, 해이실을 가볍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10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시문, 7대 안전, 아복법은 이 시기부터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되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져서 정말 더 외우기 싫어져요. 그러니깐 이 시기부터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반에 외울 때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 거 + 입으로 말하면서 외우는 거 같이 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을 때 타이핑으로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제가 활용한 사이트는 '또히의 고시문' 사이트고, 아복법이랑 7대 안전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다른 분께서 만들어 놓은 한글 파일에 타이핑을 했습니다. 해이실은 하루 30분 눈으로 가볍게 읽어나갔습니다.</p>



강의는 3일에 걸쳐서 3~4개에 나눠서 들었습니다. 월~수는 인강DAY, 목~토 복습DAY로 계획했습니다. 쉬는 날은 유동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해서 하루는 꼭 쉬었습니다. 복습할 때는 무조건 입으로 했습니다. 입으로 공부하는 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이해나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쌤이 늘 강조하시긴 하는데 입으로 뱉을 줄 알아야 하고, 역동적으로 공부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늘 독서실에서 눈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집, 카페 등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입으로 뱉을 수 있도록요! 또 확인학습, 구조화 노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강의를 듣고 입으로 복습한 다음에 기화펜으로 확인학습 문제를 풀고(여러 번 풀기 위해서!), 구조화 노트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뽁뽁하게 적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지에 구조화 노트에 있는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적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1~3강 듣기, 복습	4~6강 듣기, 복습	7~10강 듣기, 복습	1~3강 복습	4~6강 복습	7~10강 복습, 타강사 논술 강의



※ 저만의 팁!

저는 1~2월, 학기 중에는 only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집이 편했고, 조용해서 따로 독서실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방이랑 잠자는 방을 분리했어요! 제 방은 공부방으로 쓰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엄마랑 같이 큰방에서 잤습니다. 공부방이라 잠자는 방을 분리하니깐 집이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하쌤이 이 시험은 마라톤과 같아서 초반에 힘을 쏟으면 나중에 지친다고 하셔서 1~2월에는 7~8시간(학기 중에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ππ), 학기 중에는 5~6시간 공부했습니다! 차츰차츰 공부시간을 늘려나가셔야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2. 3~6월 학부병행

저는 공강이 없어서 월~금 모두 학교에 나갔어요ππ 그래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정도였어요! 학교 가기 전에 해이실 읽기, 고시문 · 해이실 · 아복법 · 7대안전 하고, 학교 갔다온 뒤에 인강을 들었어요. 이때의 일과가 1~2월과 다른 점은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서 월수목은 인강만 듣고, 금토일에 복습을 했다는 점입니다!

기출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 하루에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다음날에 기출 강의를 한번에 몰아서 들었어요. 학기 중에는 화요일이 가장 10시~6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서 이때 임용공부는 하지 않고, 학교 과제를 했습니다.

4~5월은 4주간의 실습이 있어서 공부를 아예 못했어요. 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인강이 밀리는 게 무서워서 토요일에 몰아서 들었어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확인학습만 푸는 정도로 공부했어요. 구조화 노트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구요.

5월부터 전략노트 강의가 시작되는데 전략노트 강의 보는 게 복습의 일종이고, 그 후에 전략노트를 입으로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하쌤이 다른 강사님들과 다르게 전략노트라는 강의가 하나 더 있어서 빠르게 하지만, 전략노트 강의가 복습이고 단권화의 시작이니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월에는 기말고사와 기말과제, 졸업시험이 있었어서 이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남은 시간에 임용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깐 이 시기가 굉장히 아찔하네요..^^

월	수	목	금	토	일
1~3강 듣기	4~6강 듣기	7~10강 듣기	1~3강 복습, 기출 풀기	4~6강 복습, 기출 강의	7~10강 복습, 타강사 논술 강의

※ 기출 강의 공부방법

개론 기출은 개론 강의를 끝난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복습하는 겸으로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각론 기출은 각론 강의를 앞서기 때문에 각론 강의를 듣고 바로 기출까지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 파트가 끝난 뒤에 바로 동작 기출을 풀고 기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강의 중에 하 쌤이 이런 문제에서 봐야 할 내용,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던져주시는 데 수첩에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 쌤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에서 적중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을 꼼꼼히 봐야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 후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서술노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7~11월 올인(전략노트, 문풀, 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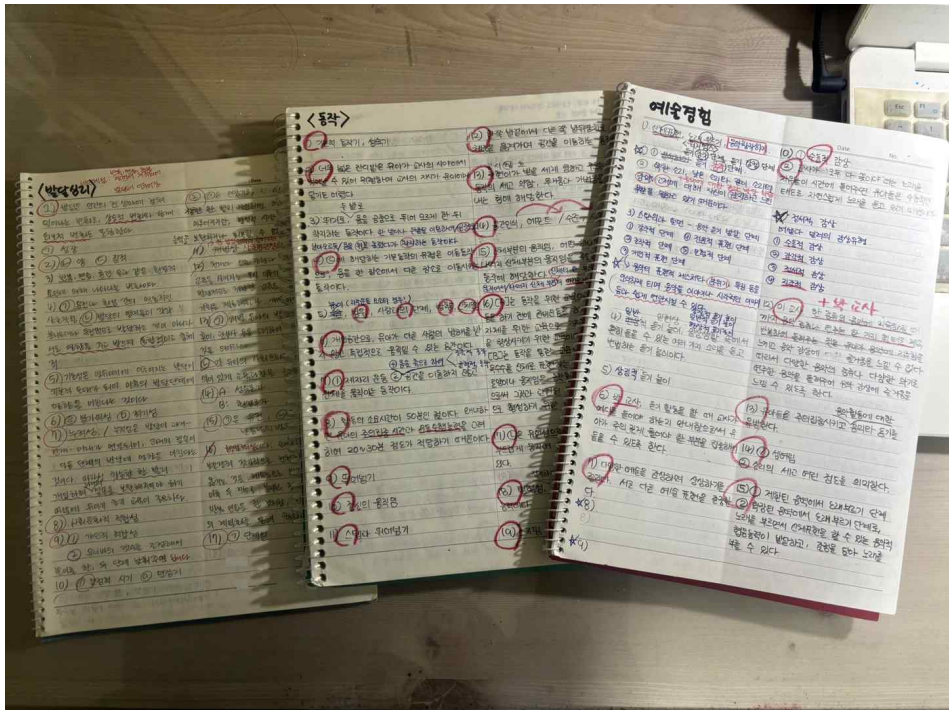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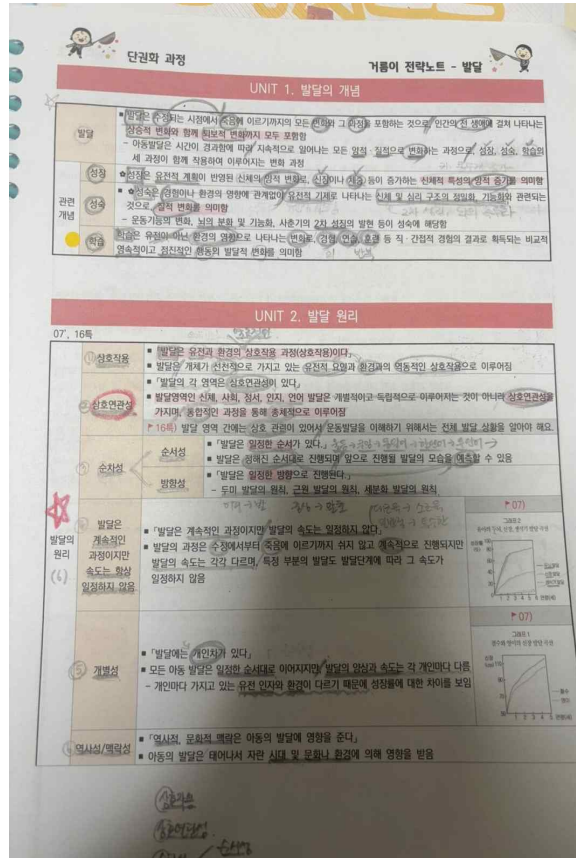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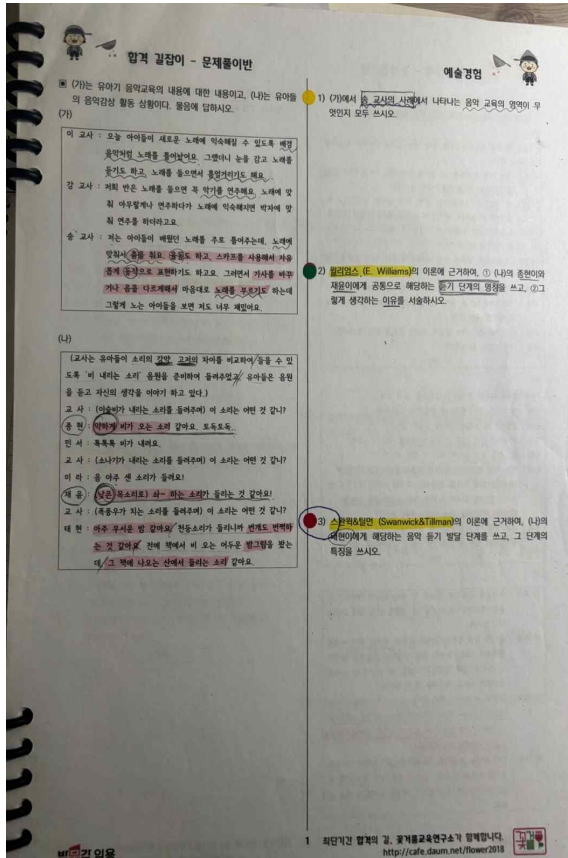
저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계졸업을 하고 7~11월은 올인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각론 강의를 다 듣고, 전략노트 강의와 전략노트로만 공부했어요. 전략노트에서 강조하시는 하 쌤의 말을 잘 듣고 별스티커로 표시를 해두고, 개각론 강의에서 강조하신 부분도 전략노트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선생님들 편하신대로 전략노트는 분철하시면 되구요. 하 쌤이 전략노트 표지를 꾸미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싶게끔 전략노트 표지를 만들었어요♥ 방대한 개각론의 내용을 단권화해주시니깐 부담도 줄어 들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워낙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전략노트만 봤어요. 기출 강의 이후로는 따로 기출을 풀지 않았어요. 전략노트에 일유, 유특, 교육학, 논술 기출이 다 들어있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출을 풀어야 할 시간이 절약됩니다. 전략노트를 1회독 할 때는 2달이 걸렸는데, 점점 속도가 붙기 때문에 1차 시험 전까지 5회독을 하고 갔어요. 1~2회독까지는 이해하기 위한 구술을 했고, 3~5회독 때는 빠르게 암기하기 위해 눈으로 읽어다녔습니다.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2달	1달	15일	7일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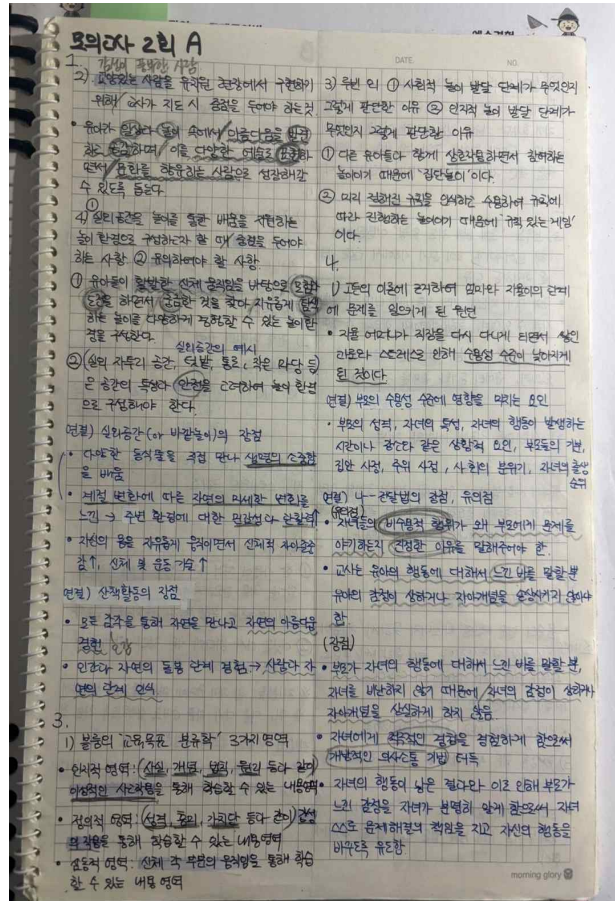
7월부터 문풀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풀하기 전에 해당 파트를 전략노트로 복습하고 풀었습니다. 문풀 종이에 문제를 풀지 않고 1차 검수노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답을 썼습니다. 여러 번 풀기 위해서요! 아예 모르거나 틀린 문제는 빨간색, 키워드를 쓰지 못한 문제는 노란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전략노트에도 붙였구요. 문풀을 한번 돌리고 2차

검수노트를 또 따로 만듭니다. 내가 첫번째 틀렸던 문제를 두번째에는 맞혔을 때 초록색 스티커를 덧붙였습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맞혔지만 두번째에는 틀리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빨강, 노랑 스티커를 문풀, 전략노트에 붙여서 한번 더 보고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멍을 찾고 매워나가는 과정이랍니다ㅠㅠ



저는 문풀을 한번 다풀고 모고를 시작했어요. 모고는 6회면 끝나기 때문에 급하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두번째 문풀을 하면서 모고를 병행했어요. 모고는 실전처럼 하쌤이 문제를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론이나 개념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문풀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쌤이 만들어서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문풀이 정말 중요해요. 모고는 문풀에서 하쌤이 내지 않고 아껴두었던 문제나 심화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전처럼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어요. 그 후 오답노트를 작성했어요. 오답노트 작

성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틀렸던 문제에 대한 답을 쓰고, 그 이론이나 개념과 관련한 내용들을 그 밑에 정리해두면 됩니다. 하 쌤이 모의고사 강의에서 말씀해주십니다. 그것을 그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또한 하 쌤이 이거를 낼까, 저거를 낼까 고민했던 문제까지 말씀해주시니깐 그것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거를 밤에 자기 전에 가볍게 항상 보고 마무리했어요! 덧붙여서 시험문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덩치급 문제, 서술형, 응용 문제를 대비해야 해요. 하 쌤은 문풀과 모고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풍부하게 내주시기 때문에 적응률도 매우 높았고, 이상한? 문제가 나와도 많이 당황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신 출제경향과 맞게, 그 이상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논술

논술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논술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써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안 써진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각론 강의를 모두 다 듣고, 그 후부터 썼어요. 아침에 하루 1시간씩 썼고, 10월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요도만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논술은 길게 쓰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논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10개년 기출을 계속 돌려서 풀었고, 모범답안을 필사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틀린 부분만 빨간색으로 그대로 적고 마무리 했습니다.

※ 안전, 총론

안전과 총론은 각각 하루 30분의 시간을 잡고 전략노트를 그냥 눈으로 읽었어요. 안전과 총론은 꾸준한 회독밖에 없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법

저는 초수라서 법은 아예 보지 않았어요. 법이 안 나오는 추세기도 하고, 법을 공부할 시간에 교육과정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재수 이상이면 법을 봐도 좋지만, 초수에게는 교육과정도 처음인데, 법까지 공부하기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깐, 법을 볼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함부로 말씀 드리기에는 어렵고, 볼 여유

	<p>가 있으면 보면 더 좋겠지요..??</p> <p>※ 빈칸노트 빈칸노트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ㅠㅠ</p> <p>※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자기 전에 가볍게 보았고, 시험 하루 전에는 마인드맵만 보고 갔어요!</p>
<p>2차 공부방법</p>	<p>1차 발표나기 전에는 타강사님 2차 강의만 들었어요. 따로 스테디는 하지 않았구요! 2차 강의 들으면서 수업유형, 면접, 과정안 쓰는 방법 정도 익힌 것 같아요. 만능틀은 만들지 않았구요 ㅠㅠ 그 시기로 되돌아간다면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1차 발표가 난 뒤부터 부랴부랴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꼭 1차 시험 끝나고 난 뒤부터 만능틀 만들기 시작하세요... 만능틀 만드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ㅠㅠ</p> <p>1차를 덜컥 붙었는데, +0점 커트라인으로 붙었어요^^ 기쁘지만 불안감이 더 컸어요. 평가원 지역은 뒤집기 어렵다는 소문과 현장 경험이 없는 저에게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약간 2차는 경험만 하고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p> <p>하 쌤은 1차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1:1 줌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총 3번 하 쌤을 줌으로 만났는데, 오티 때 2차와 관련된 질문, 공부하는 방법, 정서적 지지 등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세요. 하 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수업실연 만능틀을 만들 것, 응시지역과 관련된 면접노트를 만들 것, 초수 1차 합격은 정말 대단한 것이니 자신감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면접 1회, 수업실연 1회 총 2번의 멘토링을 해주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 쌤과 면접위원님이 함께 피드백을 제공해주세요. 이게 정말 알짜배기인 이유는 다른 2차 강의에서 들을 수 없는 꿀팁들을 알려주십니다. 태도적인 부분도 피드백해주세요. 또 저희가 현직 선생님이나 면접위원님께 피드백을 받기 정말 힘든데, 이걸 모든 1차 합격생들에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료라는 점..★ 저는 방구석 인강생이기 때문에 줌으로 하 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과 마음이 정말 커서 1차 합격해서 하 쌤을 꼭 만나는 것을 목표로 잡기도 했습니다^^</p> <p>2차 공부방법은 1차 발표 후 4주간 만능틀을 만들고,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테디 1주차에는 하루 2개씩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를 보면서 수업실연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 없이 수업실연을 하는 건 효율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2주차에는 하루 2개씩 시나리오를 쓰고, 쓴 시나리오를 기억해서 15분 동안 구상지를 써서 수업실연을 했습니다. 점점 시나리오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3주차부터 스테디원들과 유형별로 1개씩 정해서 하루에 3문제를 구상해서 수업실연을 했습니다. 면접은 하루 2개씩 연도별로 2번씩 돌리고 난 뒤에 랜덤으로 문제 내주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인성적 자질, 생태전환, 디지털, 유보이름 등)로 면접노트 정리했구요. 과정안은 3주차부터 제대로 쓰기 시작했는데, 수업실연 만능틀을 어느 정도 익혀야 써지더라구요. 저는 평가원 지역이기 때문에 평가원 2018~2024년 기출을 3번 정도 풀고 갔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 안에 안 써집니다. 그래서 모범답안을 필사하고, 어디에 조건이 드러났는지 형관펜으로 체크하고 끝냈어요. 두번째부터 어느정도 써져요. 그렇지만 시간 안에는 못 썼구요. 일단 내 힘으로 스스로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번째부터는 시간 안에 써집니다! 과정안은 하루 1시간 정도만 투자했습니다(면접이랑 수업실연 점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일단 이것들 먼저 신경 썼어요!)</p>
<p>초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p>	<p>티오는 계속 줄어들고, 이 방대한 양을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지 불안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어요. "올해는 어떤 시험인지 느낌만 볼 거야~"라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년을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다음 해에 합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하더라</p>

도 내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1년을 허수로 보내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초수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저의 공부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쌤 커리를 타시다 보면 하쌤이 어떻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공부한 거뿐이고, 제가 수기에 적은 공부방법도 하쌤이 강의에서 알려주신 방법들이예요. 수강생이 강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다면 초수 합격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년을 하쌤만 보고 달려왔고, 거의 하쌤팬이 되었거든요..♥ 또 1차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했지만 막상 결과를 까보니깐 커트라인 합격이었어요. 정말 좋았지만 그만큼 불안했어요. 이 시험이 소수점으로 갈리는 시험이잖아요ππ 그래도 누구는 소수점으로 떨어지고, 커트라인으로라도 붙은 것에 감사하기도 했어요. 또 2차를 뒤집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고,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깐요! 또 최불합을 하더라도 초수에게 2차라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다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쌤과 면접위원님께 들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것 같아요. 하쌤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시면 다른 분들도 합격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